이강옥 교수의 한국선 이야기 24 근현대 선승과 수행자



▶한줄요약
근현대에 이 땅엔 위대한 선승들과 수행자가 많이 출현했다. 근대 선승들은 일제강점기라는 힘든 역사 속에서도 치열하게 정진했다.

치열하게 정진한 이 땅의 선승과 수행자

1. 시대의 질곡과 선승의 빛

근대에 들어서면서 위대한 선승들이 연이어 이 땅에 와주셨다. 근대 선승들은 일제강점기라는 질곡의 시간대에 생의 일부를 걸었다. 그 고통과 번뇌가 수행의 과정에 깃들었다. 그만큼 수행은 치열했고 단단해졌다.

시대와 수행이 긴밀했던 세 분의 선승이 먼저 떠오른다. 고봉(古峰, 1890~1961)은 박팽년의 후손으로 통도사에서 출가를 기다리던 중에도 양반 행세를 했다. 오만한 행자를 혜봉(惠峰, 1816~1881)께 데려갔다. "너를 거드름 피우게 하는 그 물건이 무엇인가!" 화두를 내리면서 신분해방을 선언했다. '그 물건'을 찾아 용맹정진하기를 4년, 1915년 4월 어느 아침 붉은 해가 가슴속으로 솟아오르는 체험을 했다. 인가를 받던 날 고봉은 승복을 벗어버리고 대구로 갔다. 1919년 대구 남문 밖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한 것이다. 고봉은 감옥살이를 하며 받은 고문으로 평생 불구로 살았다.

조선총독부 판사가 되어 독립투사에 대한 재판을 도맡았던 효봉(曉峰, 1888~1966)은 근원적 참회를 하고 출가했다. 법기암 토담집으로 들어가면서 깨닫기 전에는 나오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수행을 한 지 1년 반 만에 벽을 박차고 뛰쳐나왔다. 용맹정진 끝에 해오를 얻었다. 세월이 흘러 노구에 치명적 병이 들었다. 앉을 힘이 없어 천정에서 드리워진 줄을 잡고 좌선했다. 죽을 때까지 화두를 들었던 것이다.

아들의 죽음이 일본 유학 시절 개 한 마리를 버린 업에서 비롯한 것임을 확인하고 출가한 제선(濟禪, 1912~1971)은 우리나라 최초 무문관인 도봉산 천축사 수행을 완수했다. 6년 만에 무문관 문을 열고 나오면서 공식적 만남을 거절했다. "부처님은 생사자재하고 언행일치하는 실력을 갖추셨다. 그런 실력을 갖추지 않은 요즘 선지식은 혹세무민하는 악업을 짓고 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부산으로 내려가 여수행 배에 올랐지만 그 후 행방이 묘연했다. 바다에 몸을 던졌을 것이다. 6년 무문관 수행에 자기 목숨을 바친 것이 분명해졌다.

고봉과 효봉과 제선, 그 결단과 수행력은 시대의 질곡에 맞선 수행자가 더 찬란한 빛을 발산했음을 보여준다. 제선의 투신에 의한 수행 종결과 효봉의 투병 수행도 그 간절함에서 차이가 없다.

2. 7일 선정 삼매

〈화엄경〉은 보현보살 열 가지 삼매의 신통을 환희롭게 보여준다. 화두수행의 선정삼매는 불보살 삼매의 위용에서 비롯하는 것일 테다. 우리나라 선수행도 선정삼매를 중시하고 그 기간도 7일 전후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해안(海眼, 1901~1974)은 7일 견성을 표방했다. 7일 만에 깨치지 못하는 것은 수행 자세가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시간이 짧아서가 아니라 했다. 철우(鐵牛, 1895~1979)와 적명(寂明, 1939~2019)도 '장소와 의지'만 있다면 일주일 만에 '체험'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용맹정진이 대체로 일주일 전후로 이뤄지는 것도 이런 전통에 이어진 것이다.

화두삼매가 되면 주객이 사라져 새 세상을 경험한다. 남방불교의 '니미따'나 대승불교의 '일몰관(日沒觀)' 등과는 달리, 화두의 삼매는 보고 듣는 대상이 없어서 어렵기는 하지만, 일단 들기만 하면 깨달음에 문득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3. 경허 가풍

경허(鏡虛, 1849~1912)는 근대 화두수행의 출발점이다. 경허는 죽음에 맞닥뜨렸을 때 엄청난 공포가 일어나는 걸 자각하자 교학을 중단하고 화두수행을 시작했다. '소가 되어도 구멍 뚫을 코뚜레가 없다'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옥죄던 의심이 사라지고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경허는 근기에 따라 제자를 이끌었다. 수월(水月, 1855~1928)에게는 7일간 〈천수다라니경〉만 외우게 했다. 수월이 주력 삼매에 완전히 들어가자 아랫마을 사람들은 천장암에서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다. 혜월(慧月 1861~1937)에게는 〈수심결〉을 먼저 가르쳤다. 혜월은 그 구절구절에서 강력한 의심을 일으켰다. 경허가 물었다. "형상 없으되 뚜렷한 그 한 물건을 일러라." 혜월은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의심 덩어리가 가슴에 사무쳤다. 바위 굴 속으로 들어가서 '이 한 물건이 무엇인가?'라는 일념만을 지속했다. 7일째, 신골에 짚신을 걸고 '탁!' 치는 소리에 '한 물건'이 환히 보였다.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펼쳐졌다. 경허가 물었다. "참선은 무엇 하려고 하는가?" "못에는 고기가 뛰고 있습니다." "자네는 지금 어디 있는가?" "산꼭대기에 바람이 지나갑니다." 경허는 혜월을 인가했다.

한암(漢巖, 1876~1951)도 "마음 밖에 부처가 있고 자성 밖에 법이 있다는 생각으로 불도를 구하지 말라."는 〈수심결〉 대목을 읽는 순간 의식이 정지되는 충격을 느꼈다. 경허는 "무릇 형상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라는 〈금강경〉 구절로 한암의 심안을 열어주었다. 한암은 통도사 내원선원 조실로 추대됐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맹산 우두암으로 떠났다. 겨울이면 사람이 살기 어려운 북녘의 깊은 산사에서 그는 확철대오하기 위해 목숨을 내놓았다. 어느 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서 타오르는 불길에 온갖 번뇌가 타서 사라졌다.

천장암 경허 문하에서 살아가던 만공(滿空, 1871~1946)은 "만법귀일 일귀하처가 무슨 뜻입니까?"라는 질문을 듣는 순간 앞이 캄캄해졌다. 아산 봉곡사로 가서 정진을 새로 시작한 어느 날 마주한 벽이 사라지고 훤한 세상이 나타났다. 첫 번째 깨달음이었다. 마곡사 토굴로 찾아온 경허가 제자의 공부를 점검했다.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다"며 무자화두를 주었다. 통도사 백운암에서 보름 동안 화두만 들고 있을 때 새벽 종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현상 세계가 무너지고 우주 법계가 보였다. 두 번째의 큰 깨달음이었다.



경허는 한국 근대 화두수행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은 경허 스님 진영.

고봉·효봉·제선·경허·성철 등 출현
일제강점기에도 치열한 수행 이어져
경허, 한국 근대 화두 수행의 출발점
파주·방행으로 제자들 길러낸 성철
백봉, 〈금강경〉 읽어본 적 없이 견성

보림 뒤 경허로부터 인가를 받은 만공은 스승을 이어 제자를 이끄는 선지식이 되었다. 만공은 수행자의 마음과 상태를 간파하는 능력이 탁월했다. 당시 내로라하는 선지식들로부터 인가를 받은 전강(田岡, 1898~1975)이 찾아오자 "너의 깨달음은 저 불목하니보다 못하다"고 내쳤다. 전강에게 분심이 일어났다. 만공이 의도한 것이었다. 전강은 초심을 되찾아 더 치열하게 정진하여 깨달음을 완성했다.

4. 성철의 파주와 법전의 기백

성철은 파주(把住, 꾸중하고 가라앉히는 것)와 방행(放行, 격려하고 놓아주는 것)을 적재적소 자유자재한 드문 선지식이었다. 성철로부터 화두를 받은 법전(法傳, 1926~2014)은 7개월 동안 화두 일념이 지속됐다. 부엌에서 된장국에 넣을 채소를 썰고 있었는데 컴컴했던 부엌이 대낮처럼 밝아졌다. 스승을 찾아갔다. "무엇이 네 송장을 끌고 왔노?" 법전은 오른쪽 주먹을 들어 보였다. 성철이 다시 말했다. "다시 일러라." 법전은 왼쪽 주먹을 내밀었다. "말로 일러라" 법전이 "아이고, 아이고" 곡을 했다. "다시 한 번 더 일러라" 순간 법전은 말문이 꽉 막혀버렸다. 성철이 법전의 멱살을 잡고는 문밖으로 내동댕이치고 세숫대야의 물을 퍼부었다. 겨울이라 온몸을 적신 물이 얼어붙었다. 선방으로 달려간 성철이 고함을 질렀다. "밥값 내놓거라 이놈들아!" 양철통의 물을 한 수좌를 향해 쏟아 부었다. 입승에게 다가가서 또 고함쳤다. "이놈아, 밥값 내놓으란 말이다!" 뺨을 후려쳤다. 뒷날 법전이 그 까닭을 물었다. "제일 어리고 가장 늦게 참여한 네가 밤낮 가리지 않고 공부하는데, 먼저 와있는 수좌들은 무얼 하고 있느냐는 경책이었다." 수승한 선지식을 절대적 이상으로 받들 수 있었던 행복한 수행 풍경이다.

분발한 법전은 생사를 건 수행을 하기로 결심하고 묘적암으로 갔다. 가져간 쌀을 다 먹도록 공부를 마치지 못하면 굶어 죽기로 했다. 석 달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마음에 통쾌한 변화가 있음을 자각했다. 스승이 계시는 성전암으로 달려갔다. 철망을 뛰어넘어 마당에 우뚝 서서 사자 소리를 냈다. 그리고는 쓰러졌다. 깨어난 제자에게 스승이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냐?" "죽은 사람 앞에 술이 석 잔" 성철이 또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냐?" 법전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하고 했다. 그리고 바로 일어나 방 안을 거닐면서 오도송을 읊었다.

5. 〈금강경〉 한 번 읽지 않은 백봉

세속에서 스승 없이 견성한 거사 백봉(白峯, 1908~1985)의 존재는 재가 수행자들의 희망이다. 백봉은 국내와 만주에서 항일독립운동을 하다가 사형수가 되기도 했다. 해방 뒤 교육사업을 하면서 무자화두를 받았다. 화두 일념이 바로 되었다. 불보살이 현현하는 등 희유한 체험을 연이어 했지만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화두만 들었다. 보름간 가행정진을 할 때였다. 몰래 뒷산 바위 위로 올라가 선정삼매에 들었다. 아랫마을 사람들이 암자 뒤 바위 쪽에서 불빛이 솟구치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그곳에 금광이나 금불상이 있다며 삽과 곡괭이를 들고 달려갔다. 바위 위에는 눈 속에 파묻힌 사람이 코만 내밀고 가늘게 숨을 쉬고 있었다. 몸을 녹여주었다. 거룩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한 도반이 선어록을 읽어주었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 순간 몸이 굳었던 백봉이 벌떡 일어났다. 백봉의 몸에서 방광이 다시 시작됐다. 예배당의 새벽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도송을 읊었다. 도반이 다시 〈금강경〉을 읽어주자 구절구절 명쾌하게 풀어냈다. 백봉은 〈금강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다.

6. 거울

이제 말을 그치고, 〈맛지마니까야〉 '파발수레의 경'의 감동적인 대목을 거울삼아 우리를 비춰보자. 수행승들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존자 만따니뿟따는 자기 고장 토박이 수행승으로 스스로 욕망을 여의고 수행승들에게도 욕망의 여읨에 관해 설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수행승들에게도 만족에 관해 설하고, 스스로 한가하고 수행승들에게도 한가함에 관해 설하고, 스스로 정진수행하고 수행승들에게도 정진수행에 관해 설하고, 스스로 계율을 갖추고 수행승들에게도 계율의 갖춤에 관해 설하고, 스스로 삼매를 성취하고 수행승들에게도 삼매의 성취에 관해 설하고, 스스로 지혜를 성취하고 수행승들에게도 지혜의 성취에 관해 설하고, 스스로 해탈을 성취하고 수행승들에게도 해탈의 성취에 관해 설하고, 동료수행자들을 훈계하고, 인식하게 하고, 교시하고, 독려하고, 고무하고,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동료수행자들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싸리뿟따가 물었다. "벗이여, 무엇을 위하여 세존을 따라서 청정한 삶을 영위하십니까?" 만따니뿟따가 답했다. "벗이여, 집착 없이 완전한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 세존을 따라서 청정한 삶을 영위합니다." 〈끝〉

〈연세대 객원교수〉

건강한 수행을 위한
기적의 소금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그대로 담은
최초의 제품, 소금이 아닌 소금,
기적의 소금으로 불리고 있는 소금이 있다.

강원도 고성 수평선 넘어 6KM 떨어진 깊은 바다, 수심 605m의 깊은 심층수를 길어 올려 첨단공장에서 정성을 다해 정성을 다해 만든 건강을 위한 제품입니다.

깊은바다 해양심층수의 깨끗함, 풍부한 미네랄을 살려 나트륨은 적고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바다의 모든 미네랄은 풍부한 소금, 모든 미네랄은 들어 있지만 쓴맛이 없는 부드러운 짠맛의 소금,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을 한포 한포 물에 타서 드시면 새로운 건강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씨아드의 첨단 기술과 생명살림의 마음을 담아 물에 타서 수시로 마실수 있도록(1포/500ml) 개발했습니다.
김오곤 원장 처방에 따라 몸에 좋은 침향을 첨가한 제품도 있습니다.
좋은 제품 드시고 모두 건강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 오씨아드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은 강원도 고성 해양심층수 특화산업단지에 있는 해양심층수 엠큐눈소금 전용공장에서 생산 판매됩니다.





엠큐해양고미네랄(75,000원)
3g x 31포 x 2박스 + 180g 1병



김오곤원장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125,000원)
3g x 31포 x 3박스=93포(침향 7% 함유)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소금인간- 소금이 답이다" 책(18,000원판매중)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주문 전화 및 대리점 희망 전화 : 033-631-9976, 010-5022-0442
www.mqsalt.com, www.ociad.com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경남 고성 대명사, 전국 캠핑장 캠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문의 010-3267-1263